

# 광주신세계, 광주와 아름다운 동행 25년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광주와 동행한 지 올해로 벌써 25년이 됐다.

현지법인 출범과 함께 내세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친 결과, 광주신세계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

개점 초기부터 지난 25년간 지속해온 장학사업, 2006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회사의 매칭 그랜트를 통해 진행한 ‘희망 배달 캠페인’, 현지법인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제도 등을 하고 있으며, 지역기업 및 제품 활성화, 나눔 경영, 지역상생활동, 문화 후원, 친환경 활동 등의 지역 친화 사업을 구체적인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콘텐츠 사업으로 발전 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도와 손잡고 농수축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상생 장터를 꾸준히 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수축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또 판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신세계와 전남도는 지난 5월 농수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로 인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역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역 맛집 판로 개척으로 전국구 발판 마련

지난해 6월 지역 맛집과 손잡고 푸드플라자를 오픈해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새로운 먹거리 명소가 주목받고 있다. 광주신세계 각 점포에서 문이가 쇄도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던 소맥베이커리와 신선한주방이 신세계 타임스퀘어점에 입점했다.

##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행사를 매년 지속해서 하고 있다. 올해도 ‘초록우산 어린이 장학재단’, ‘서구장학재단’ 등 장학재단과 지역 관공서에 약 1억3천만원의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를 포함해 25년간 지역인재 2천700여명에게 총 28억여원을 지원하는 높은 성과를 냈다.

지역대표 국제 현대 미술 전시회인 ‘광주비엔날레’가 세계적인 문화 예술 축제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1995년 1회 행사부터 후원을 지속해 지난 행사까지 총 17억원을 광주비엔날레 후원금으로 지원했다.

이동훈 대표는 “광주신세계가 광주와 동행한 지도 벌써 25년이 됐다.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에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변치 않은 모습으로 참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⑦



1 광주신세계백화점  
2 이동훈 대표이사  
3 상생 장터